

“서민형 협동조합이 지역경제 새 모델”

한은·광주시 '협동조합 활성화' 세미나

광주 특성에 맞는 유형 발굴·육성 필요

새로운 법인적인 '협동조합'이 광주·전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어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기능을 보완하는 등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안으로도 꼽혔다.

3일 한국은행광주전남본부와 본부 1층 강당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지역경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인준형 조선대 교수는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연대와 상생 등을 기본으로 한 '협동조합'이 지역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이 될 것”이라며 “광주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유형을 발굴·육성하고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 등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특히 광주시의 실정에 맞는 광주형 협동조합 유형으로 5가지지를 제시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비자의 공생을 위한 '업종별 소매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영세 농업인과 도시소비자가 공생하는 '농산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 ▲문화예술인과 관계자 등의 '문화예술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대학생이나 청년 등의 창업을 위한 '청년창업 협동조합' 등이다.

이처럼 소액·소규모 서민형 협동조합들이 다수 등장하면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자발적 존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고, 자활공동체·영유아교육·저소득 취약계층 사업 등 협력을 통해 새로운 사회복지 서비스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임형섭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주형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공격적 성격이 강해야 하고 민간 자영업과 경쟁을 하지 않아야 하고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1층 강당에서 열린 지역경제 세미나에 지자체 협동조합 담당자를 비롯해 관련 기관 종사자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제공)

지역민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주환 전남사회복지협동조합지원센터 총괄팀장은 “광주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면 일반적인 부분과 사회적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고 이에 맞춰 업종도 분류해야 한다”며 “수많은 협동조합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지원체계에 대한 협의와 마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환 아이클럽고을생협이사장은 “현실에 대한 이해와 장기적인

대안 없이 접근하면 실패한다”며 “시장의 변화, 지역경제 변화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투자고용국 일자리창출과 김동형 사회복지팀장·협동조합 팀장은 “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는 제도 등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준비도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기업 CEO·임원 출신 경험·노하우 경영전략서 이자비용 절감까지 도움”

광주상의, 대한상의 자문단 초청 中企 자문

“단순 회계관리·창고관리 솔루션 위주인 사내 정보화 체계를 ERP(전자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기업 CEO 출신의 자문을 받게 돼 큰 도움이 됐다.”(최창호 엘에스티 실장)

“재무관리에서 이자비용 절감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다.”(조재희 광암스틸 대표이사)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29~30일 이틀간 지역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경영에 도움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

단을 초청해 무료 경영자문을 실시했다. 대기업 출신 CEO(최고경영자)와 임원 100여명으로 이뤄진 자문단은 전국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가 그동안 갖고 있던 경험과 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하고 매출 증진, 판로 개척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자문에는 오랜 현장 경험을 갖춘 정주호 전 한국지엠(주) 대표이사, 김용근 전 광양제철소 부소장, 정재기 전 웰라코리아 부사장, 황현규 에파타노부사 대표 등 4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엘에스티, (주)광암스틸, (주)캡포트, (주)천부산업, (주)강청 등 광주지역 5개 중소기업을 방문해 경영전략·재무관리·마케팅·인사·노무 등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전·현직 대기업 출신 CEO들의 현장경험의 노하우가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에로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경영자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자문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기획진흥부(062-350-5865)로 신청하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외식업 경기 3·4분기도 바닥

작년 동기대비 매출 큰 폭 감소

외식(外食)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외식업의 경기현황과 향후 전망을 조사·분석하여 지수화한 '2012년 3분기 한국외식업 경기지수(KRBI)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3·4분기 외식업 경기지수는 70.70으로, 외식경기의 침체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별로는 일반 유흥주점업(53.85), 기타주점업(67.69), 중국 음식점업(68.49), 치킨 전문점업(69.18) 순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가 뚜렷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적었던 업종은 제과점업(76.92),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76.67), 일반 한식 전문점업(74.58) 등이었다.

외식경기가 좋지 않았던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외식소비 위축과 자영업자의 신규 진입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경쟁심화 등으로 풀이된다.

aT 광주·전남지사 관계자는 “현재 외식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과 소규모

로 경영주, 예비 외식사업자들이 외식 경기를 과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식업경기지수 조사·발표 등을 통해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식업 경기지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미국 레스토랑협회(NRA)의 외식업 경기지수(RPI)를 모델로 지난해 aT와 경희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지수이다. /송기용기자 song@kwangju.co.kr

월세가격 상승세 주춤 11월 전월비 0.1%↑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월세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졌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전국 월세가격이 10월보다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전국 월세가격은 9월과 10월 두 달 내리 0.2%씩 올랐다가 지난달 오히려 다소 줄었다. 수도권은 수요 감소와 신규 공급의 증가로 보합세를 보였다. 서울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0.1% 올랐지만 경기도는 가격 변동이 없었고, 인천은 0.1% 하락했다.

지방은 대전(0.6%)과 대구(0.5%)

의 상승세에 힘입어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공무원 월세 수요가 급증했고, 대구는 수성구 지산동과 범물동의 중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렸다.

하지만 부산이 0.1% 하락했고, 광주와 울산이 각각 0.1%씩 오르는 등 나머지 지역은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0.1% 하락했고 단독주택은 보합세, 연립·다세대는 0.1%의 상승세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한남세라믹 '석탄 버너 세퍼레이터' 중기형 성능인증

장성에 있는 (주)한남세라믹이 개발한 '화력발전소용 석탄 버너 세퍼레이터'가 기술개발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성능인증(EPC)을 받았다.

이 제품은 화력발전소 보일러 설비에서 석탄 미분기로 공급되는 미분탄

과 연소용 공기를 버너로 공급, 미분탄의 양을 자동적으로 조절해 화력발전소의 미분탄 운송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품은 국내의 모든 500MW급 표준 화력발전소에 적용이 가능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겨울 봄채소 2일 오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봄동·달래·냉이·돌나물 등 봄채소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달래(2680원·80g), 봄동(1580원·500g), 돌나물(990원·150g) 등 '봄채소 3총사'를 지난해보다 일주일 가량 앞당겨 판매한다. (이마트 제공)

▲ 코스피지수	1940.02 (+7.12)
▼ 코스닥지수	498.97 (-0.40)
▲ 금리 (국고채 3년)	2.84% (0.00)
▲ 원·달러 환율	1083.10원 (+0.2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 사무실 영업장 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A형 불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단독형(스토브식)난로
220V, 60Hz	220V, 60Hz
500 x 530 x 870	외형 치수 550 x 750 x 1050
약 65kg	제품 중량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최대연료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소 연료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최대 30kg
60W	정격소비전력 70W
약83㎡(규 약20~30평형)	시용 면적 약149㎡(규 약40~50평형)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환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단, 전기온풍기는 0~100kw 사용량을 전유로 금액 사용량이 높아, 1시간 최고 10.4kwh까지 전기 사용시 22.4kw 사용(1시간 약 10.163원)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문의 070-4111-7823 / 전화 010-9468-3282

2013년 상해화동이공대학 겨울방학 단기연수

2006년 여름단기연수부터 시작하여 한번도 거르지 않고 15회째 진행되고 있는 경험많고 안정적인 믿음직한 단기여학연수입니다.

학동이공대학 2013년 3월 학기 여학연수 무료수속 진행!

연수비용: 8,500원/학기 / 기숙사비: 60원/일 - 1인실 제공 / 보령비: 400원 / 신청기간: 2013년 2월말까지

연수기간: 2013년 1월 7일 ~ 2013년 2월 2일 (4주)

연수금액: 99만원 (등록수수비 6만원 별도)

연수대상: (만18세 이상)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강사내역: 등록비, 학비, 교재비, 기숙사비, 인솔비, 중국문화체험비(상해시내버스투어)

복 포함: 항공료, 비자비, 개인용품

접수마감: 선착순 45명 (1인실 한정) 마감

숙사조건: 기본 1인실, 개별화장실, 욕실, TV, 전화, 에어컨, 옷장, 책상, 냉장고, 세탁기(무료)

인터넷(교내 인터넷실 이용 1시간/2원, 방 안에서 이용을 원할 경우 설치비150원/월/65원)

숙소생전원 1인실제공

상해화동이공대학 한국사무소 개소 특별이벤트

단기연수 신청자에게는 기념품가방 증정!!

중국어 사관학교

리틀차이나 中国語学院

www.littlechina.co.kr

지금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 233-9582 (중) 구오탈리